

-(으)십시오

청유 — ~합니다, 함께 ~하자

함께 무엇을 하자고 제안합니다. 교재에서 일찍 배우는 표현이지만 생각보다 권위적인 느낌이 있어서,윗사람에게 쓰기에는 알맞지 않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ㅂ시다	가다 → 갑시다
받침으로 끝남	-읍시다	먹다 → 먹읍시다
ㄹ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듭시다
반말	-자	가자
윗사람에게	-(으)시죠 / -(으)ㄹ까요?	가시죠 / 갈까요?
부정 청유	-지 맙시다	가지 맙시다

■ 언제 쓰나요

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면 -ㅂ시다가 붙고 ㅂ은 앞 음절의 받침으로 들어갑니다: 가 → 갑시다. A 받침으로 끝나는 어간에는 -읍시다가 붙습니다: 먹 → 먹읍시다. 어간이 ㄹ로 끝나면 ㄹ이 탈락합니다: 만들다 → 만듭시다.

꼭 신경 써서 익혀야 할 부분은 말투입니다. -(으)ㅂ시다는 동등하거나 아랫사람에게 알맞고, 회의나 공지에도 어울립니다. 선생님이나 상사에게 하면 지시처럼 들리기 때문에, 한국어에서는 대신 -(으)시죠를 쓰거나 다 음과 같이 질문 형태로 바꿉니다: -(으)ㄹ까요?

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반말 형태 -자를 씁니다: 같이 가자. 또한 행동을 제안하는 표현이므로 동작 동사에만 쓸 수 있습니다.

■ 예문

- 1 이제 시작합니다.
- 2 다 같이 노력합니다.
- 3 여기서 좀 쉽니다.
- 4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합니다.
- 5 늦지 맙시다.
- 6 조용히 합니다.

■ 비교

-(으)ㄹ까요?
-(으)ㅂ시다는 결정하는 말이고, -(으)ㄹ까요?는 묻는 말입니다. 질문 형 태는 상대가 거절할 여지를 남기므로 말을 꺼낼 때 더 안전합니다.
밥 먹읍시다. (먹기로 정함) / 밥 먹을까요? (먹을지 물음)

-(으)시죠
윗사람에게 쓰는 형태입니다. 높임의 -(으)시-가 들어 있어 제안을 권유 로 부드럽게 바꿔 줍니다.
부장님, 이쪽으로 가시죠. / 부장님, 이쪽으로 갑시다(×)

-자
친한 친구나 분명히 어린 사람에게 쓰는 반말 형태입니다. 문장의 다른 부분에 존댓말 어미와 섞어 쓰면 어색합니다.
같이 가자. (친구) / 같이 갑시다. (동료)

■ 주의

- × 선생님, 같이 점심 먹읍시다.
- 선생님, 같이 점심 드실까요?
-(으)ㅂ시다를 윗사람에게 쓰면 지시처럼 들립니다. 윗사람에게는 -(으)ㄹ까요? 로 묻거나 -(으)시죠를 쓰세요.
- × 저녁을 만들읍시다.
- 저녁을 만듭시다.
ㄹ로 끝나는 어간은 -ㅂ니다, -(으)세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ㄹ이 탈락합니다.
- × 오늘은 날씨가 좋읍시다.
- 오늘은 날씨가 좋으면 좋겠어요.
행동은 제안할 수 있지만 상태는 제안할 수 없습니다. 형용사에는 이 어미를 쓸 수 없습니다.